



張所

教育大學

光州商大

忠信洞

光州信大

光州駅

光州北中

文

壽昌園

光州西中

文

忠信洞

文

日2

光州中女

社龜洞

谷園

文

月山

觀德亭

성도의 벗

9월 호

社櫻公園

## 목차

권두언 .....	3
예업자 말씀(대관장) .....	8
내가 보는 인식론 .....	13
부름 받은 선교사 .....	19
광주지역 개척 .....	20
비 회원으로부터의 격려 편지 .....	23
이 영범 형제의 결혼 .....	25
선교부 계보위원회 소식 .....	27
물론 소년단 조직 .....	29
하근수 형제 내한 .....	31
버틀러 형제 한국에 유학오다 .....	31
선교부장님의 활동 .....	32
소프트 볼 게임 중계 .....	34
대구지부 자랑 .....	36
침례자 명단 .....	38
각 지부 활동 협함도표 .....	39

\* \* \* \*

표지 설명 — 개척되고 있는 광주시

# 卷 頭 言

Editor's Page

## 靈魂의 開發法

B. H. 로버트

매달 쓰신 팔머 선교부장님의 권두언 대신에 한국의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에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한 비.에  
이취. 로버트 형제님의 말씀을 추천해 주셔서 권두언으로 대  
신 합니다.

원리들을 수락하고 의식들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주신 권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집행되고 하나님의 이름  
으로 행해진 의식이라면 이 사람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 왕국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국  
의 시민으로서 거듭난 것입니다.

나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의식들에 순종하므로써 사람은  
하나님 왕국에 태어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의 그의 위치가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의 입장과 꼭 같다는 것을, 알 깨  
워주고 싶습니다. 이 갓난애는 모든 재능과 기권과 그리고 사  
람으로서의 손발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들은 미숙하거나 발달  
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 갓난 아이는 눈을 감고 지고는 있  
으나 물건들을 식별하거나 자기 어머니의 친절한 얼굴을 알아  
내는 데는 얼마동안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귀  
를 가졌으나 소리를 알아 들을 수 없고 입을 가졌으나 말할

수 없으며 손발이 있으나 서거나 걸거나 달릴 수도 없음은 물론 손이나 팔의 근육을 조절하지도 못합니다. 그 어린애는 느끼고 움직이는 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한계까지 발달될 때까지 성장과 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어린애가 이러한 기관을 사용할려는 첫 시도는 그 결과로 볼 때 틀림없이 불완전할 것입니다. 입은 첫 말을 할 것이나 서투르게 할 것이요, 첫 발디딤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릴 것이다. 손의 움직임은 정확하지 못하고 서투른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노력으로 틀린 말만 할 수 밖에 없었던 입은 마침내 유창한 말을 하게 되고 청중은 그 목소리의 매력에 정신을 잃고 경청하게 될 것이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던 발걸음은 마침내는 곧곧하고 위풍 당당한 걸음으로 바꾸어진다. 것처럼 서투르던 손도 사용함에 따라 숙련된 기술자의 손이 되고 자기 마음먹은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에서 값 탄생한 사람들은 이들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물에 완전히 발달된 남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속에서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야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으르지 않고 열매없는 자가 되



지 않게 하려니와 이러한 교훈은 이 삼권사대나 어느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새로 탄생한 성도들은 자기들에 작용되는 새로운 세력에 쫓겨 민감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 있는 자기들을 발견할 것이며 자기들 내부에서 새로운 힘이 발전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걸을려고 비틀거릴때 근육을 완전히 조정하지 못하여 여러 번 넘어진 것입니다. 이와같이 새로 탄생한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도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자기들의 갓난애 시절 처럼 아마도 머뭇거리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늘 나라의 자녀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개발하는데 지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과 자비로운 친절을 내보이셨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인류의 약점이요, 자비와 인고가 풍부하고 골잡 활을 내시지 않는 하나님 성격에 관한 계시에 있어서 되풀이해서 확신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계명의 빈번한 위반이며 인간의 마음이 점점 희미해 감이며 영혼을 개발하려는 그의 노력을 마비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준 이러한 사실들과 더불어 인간은 항상 기도하고 낙담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빠르기를 다루는 경주가 아니고 감함을 다루는 전투가 아니며 최후까지 견디는 사람들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더 심한 투쟁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을 위한 이러한 투쟁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며 나는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보다

더 심사숙고케 하는 그리스도 복음의 다른 조건이 없음을 압니다. 요한은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썼다. "두투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성경에는 이러한 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에 들어간 뒤 이 페이지에서 이미 지적한대로 율법은 율법대로 성경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배움으로서만이 구원을 보장될 것입니다. 오늘의 유혹을 이겨내고 내일의 약점을 극복하며 그 다음날과 매일 매일의 그리고 매달 매년 악습을 버리고 기질이 악한 것은 제거해 버리드로서 이처럼 불안정한 성질은 씻겨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복음서의 법과 의식 밑에서 이루어지는 성질의 문제이며 특히 성령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기필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칭해받지도 않고 후퇴하지도 못하는 성령의 민감한 본성과 알맞는 환경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영적 또는 도덕적인 발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상한 행동을 행해서 고상한 감정을 가꾸어야 합니다. 꼭 위대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일을 하려는 기쁨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따금씩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상한 행동은 매일 행해져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하려고 행한 이러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일치시켜 줍니다. 그리고 예언자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계신곳에 가고 싶다면 꼭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거나 하나님이 가지신 원리들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에게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떨어져나가 악마에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악마에게 기우러지는 기질에 따를것에 거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상한 기질을 가짐으로서 성질은 그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답게 되어질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성질의 소유자는 하나님과 살기에 적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준비해 둔다면 그의 부르심과 선택은 확실함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 \* \* \* \*

있이 지는군요.

아니 하늘이 높습니다.

(언제는 하늘이 알아나요 뉘?)

들로 뻗힌 셋길로 대화가 영글어

계절은 또 저대로 풍성해 지는구나.

빨갭게 빨갭게

돌이네 지붕에 널린 고추처럼

사랑인가? 마음인가? 타는 듯 악악가는 것.

## 豫言者의 말씀

### 復活의 事實



大管長 데비드 오·멕케이

(지난호의 계속)

후에 이 예언자는 그가 체험했던 시험의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 저는 시험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를 알며, 하나님이 아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를 부인하지 않으며, 감히 부인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가 부인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공박하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요셉 스미스서 2장 25절)

만일 요셉 스미스의 간증이 다만 그 하나만의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서 얘기했을 때 경우를 들어 말했듯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간증을 동반하며 사도들의 것을 동반합니다. 이에 준하여 요셉 스미스는 도저히 의심하지 못할 세 견증인의 간증을 갖습니다. 이 세 견증인은 모토나이 친사의 나타나심에 관하여 요셉 스미스가 증거한 바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대 예언자들의 간증을 반증함에 있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시험을 세상에 공포합니다.

"우리가 많은 증거를 전하였으나 이제 끝으로 하나를다시 전하노니, 곧 그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그를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증거하노라"

"그에 의하여, 그를 통하여 그리고 그토 말미암아 세상들이 창조되며 창조되었고 그위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교섭 76장 22-24절)

사건을 중심으로 수 개념을 두고 증거해온 초대 사도들의 비난의 여지가 없는 간증과 바로 이 시대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간증 앞에서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과 인간의 불멸성을 부인하는 일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느낌 이상의 것이며, 행동의 원천이 되고 인간에게 있어서 만물을 행하는데 행동방향의 근본이 됩니다.

근래로 모친을 잃은 저명한 의사가 학생들에게 다만 신앙을 지킬것을 강조하여 이야기 한데서 신앙의 편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신앙을 거절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때로는 과학조차 어찌할 수 없는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 여러분이 심각하



게 생각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달리는일을 수 없는 위안과 위토를 가져다 줍니다. 종교가 지극히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배척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필경 종교는 지극히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리라고 믿습니다."

죽음을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이란 탄생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 할까요? 더러 몇몇 사람들은 인생이야말로 가장 진귀한 것이요.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바토 영생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진대 절망의 눈으로 어둡고 침울한 무덤에서 하늘로 눈을 돌려 그리스도 살아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 드리지 않고 부활이라던지 믿음을 받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였고 불멸의 몸이 되셨습니다. 도마가 살아나신 주를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 20장 28절)이라 했을 때 그 말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전능자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드렸을때 그의 부친이 그와 같은 개인으로의 하나님이심을 쉽게 유추할 수 있으니, "...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 (요한 14장 9절)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속주임을 선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자가 아니면 그를 위대한 개혁자, 이상적인 교사 혹은 영웅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 완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갈릴리의 인자, 그는 표상적 인물이 아니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부활의 원리는 인간의 불멸성을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필멸의 인간으로의 운명 짓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남들과 더불어 희노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는 친우 관계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반역자와 그릇된 송사자들이 가져다 주는 습품을 맛 보았으며, 앞으로 여러분도 당할 인간으로의 죽음을 맛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후에 다시 사신 것 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전쟁터에 나간 여러분의 아들들도 다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시어 죽음을 정복하셨고 이 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일이 다만 불행과 비참과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헛된 일이라 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변형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그의 가르침을 매일의 생활에 응용할 수 없습니다. 거듭 산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느낌은 형용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고조시키고 변형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느끼고 살아계신 구세주의 친밀을 절감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신앙을 품으며 부활이 전해주는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염원하고 간구하는

영원한 평화의 답성을 위한 거보가 내 던져질 것입니다. 그를 거역할진대 세상은 증오로 가득찰 것이요, 끔찍한 전쟁의 유희로 물들여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야할 의무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땅을 왕래하신 최후 유일의 완전하신 분입니다. 고상함의 빛나는 표본이요, 하나님의 도습을 하신 이요, 완전한 사랑이시요, 우리의 구속주며, 구세주요, 빛과 생명과 길이 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흠없는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것처럼 모든 사람이 각기 합당한 순서대로 다시 살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 슬픔에 잠길 때 가장 영광스럽고 위안이 되는 소식입니다. 또한 슬픔에 쌓인 가슴은 "그가 다시 사시어 여기 계시지 아니하도다"하는 표현에서 성스런 확신을 얻게 되며 위안을 얻어 소망을 갖게됩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이 극복되었음을 알며 구속주께서 살아계신 것 처럼 우리가 살 것을 압니다. 나는 그가 살아계심을 여러분께 간증합니다. 제가 이것을 아는것 처럼 여러분께서 성스런진리를 알게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인류가 이러한 신앙을 갖게될날이 이트기를 빌며 이 드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멘.



## 내가보는 認識論

李 英範

"너희가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리스도에게 토마의 유대지방 총독이 었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반문한 일이 있습니다.

철학적 용어를 빌린다면 진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냐 하는 방법론을 인식론(Epistemology)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회과학중에도 종교학 심리학 철학이 서로 공통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서로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날까지 알려지고 논의되는 방법론에 여러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마는 나는 다음의 세가지 방법으로 분별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과학적 방법 (Scientific method)이요, 둘째는 철학적 방법 (Philosophical method)이요, 셋째는 심미적 방법 (Aesthetical method)입니다. 심미적 방법을 직관적 혹은 예언적 방법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하에 간단한 이 세 방법의 다른 점을 적어 보기도 하겠습니다.

첫 째

과학적 방법: 중세기에 이태리의 어느 작은 마을에 세 심부가 옹기 종기 동여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 끝에 웃음게도 말의 잇빨수가 전부 얼마나 되는가 하는 화제가 벌

어졌습니다. 한 신부는 30개라고 말했으며 다른 한 신부는 34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토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이 광경을 물끄림히 바라보는 세법재의 신부가 "아니 그럴것 없이 우리 다 나가서 말의 잇빨수틀 헤어봅시다."라고 건의를 하였답니다.

실제로 재고 세어보는 방법은 진리를 찾는 데에 있어 가장 초보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세어보고 재보고 다루어보고 측정해 본다는 일도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참석자의 인원이 얼마나 되며 라성과 상항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 하였을 때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남북한의 한국의 총 인구가 얼마나 되며 지구의 직경이 얼마나 되나 할 때에는 문제는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측정할 수 있고 셀 수 있는 분야가 넓어졌습니다. 먼곳을 보기 위해 망원경이 만들어 졌고, 미생물을 보기 위해 현미경이 있으며 인체의 내부를 투시하기 위하여 엑스레이가 발견이 되었으며 공중에 지나는 음파를 잡기 위해 레디오가 생겼습니다.

인류는 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발견했고, 이 진리의 응용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을 향상시키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유사 이래 오늘날까지 인류가 발견해 놓은 진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궁한 진리에 비교할 때에 그것은 넓은 바다의 하나씩 조개 껍질 혹은 달밝은 밤하늘에 어렴풋이 보이는 별하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철학적 방법: 아지람이 피는 흙철이 되면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가 온 것을 압니다. 달의 차고 기우러짐을 보고 어부들은 고기잡이 배를 탑 시각을 관정합니다. 어느 미지의 액체에 염산을 가했을 때에 흰 침전이 생긴다면, 화학자는 이 액체는 수은족 금속물의 용해물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이미 밝혀진 진리와 사실들을 토대로 하여 인간의 사고력, 상상력, 추리력을 통해서 진리를 밝히는 것이 철학적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지성인에게 가장 매력을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약점은 인간의 추리력도 신빙성이 적을 때가 있으며 또 신빙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밝혀진 진리가 불완전할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 때 오랜동안 사람들은 해가 지구를 중심하여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해서 이루어진 물리적 체계는 지동설이 발견되었을 때에 헛된 신작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추리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학에 있어서 그 근본이 되는 대부분의 공리는 상식을 토대로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리 자체도 때로는 의심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말하는 테두리(

)에 따라 우리들의 결론은 혹은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범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에다 다시 하나를 보태면( $1+1=2$ ) 둘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참으로서 긍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진법의 세계(테두리)에서의 이야기지 오늘날 구라파와 미국에서 가장 유행되는 전자 계산기에 적용된 2진법의 세계(테두리)에서는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열이 되고 맙니다. ( $1+1=10$ )

### 셋째

심미적 방법: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순화되고 심령에 질서가 잡히고 고요할 때에 이른 여름 잔디밭에 아침이슬이 나리듯이 내 마음속에 신비스럽게 무엇인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영감이라 말하고 종교인은 계시라 말하고 철학인은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시인치고 이것을 부인한 사람이 없고 어느 종교인치고 이것을 부정한 사람이 없으며 어느 철학인치고 이것을 용인하지 않은 사람이 드뭅니다.

이 방법은 인간 내부에서의 하나의 체험이며 이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은 체험자에게는 부동하는 영원한 지식이 됩니다. 이 방법에 있어서는 진리와 진리를 받는 자와의 중간에 아무런 중계요소가 없기 때문에 가장 신빙성 있고 실수 없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오관을 통하여 혹은 이성을 통하여 감수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인간의 궁극의 여러가지 문제는 오직 이 방법만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심미적 방법을 통하여 진리를 찾게될 때에 진리는 이미 희미한 것이 아니고 진리와 내가 동일체가 되며 내가 진리

안에 있고 진리가 내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은 이 체험을 기록해 보고 형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로서 기록할 수 없고 감정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심미적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기쁨, 영원한 기쁨,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혹은 아름다움,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 묘사할 수 없는 영원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형용구 이외에는 다른 표현의 방법이 없습니다.

비록 사람에 따라 그 체험의 형태와 그 체험의 강하고 약함이 다르다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말하여 심미적 체험을 통하여 가져오는 결과와 영향은 다음과 같이 해 볼 수 있습니다. "복잡했던 모든 것이 돌연히 자리가 잡히고 해결할 수 없는 다난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책이 있다고 느끼게 되며 새 희망과 새 생명을 내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인생은 한결 아름답고 달콤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심미적 방법을 통해서 진리가 밝혀질 때에 그것은 힘이 있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하여 볼 때에 이런 체험자들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특히 과학의 테두리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로 하여금 이단자로서 취급을 받게 되고 박해를 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역사에 남길 위대한 대 체험자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못살게 만들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독약을 먹여서 혹은 실자가에 못을 박아서 혹은 불에 태워서 혹은 총으로 쏘아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 가는 데는 이삼의 세 방법을 두려움 없

이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제삼의 방법을 대단히 두려워했고 등한시 해왔습니다. 제일의 방법만으로 혹은 제이의 방법만으로, 혹은 제삼의 방법만으로 전체의 진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리가 셋이 있는 발판 꼭 마찬가지로 한 다리가 없이는 지탱할 수 없으며 또 세다리가 균형이 잡히지 못했을 때에 그 자세는 어색한 자세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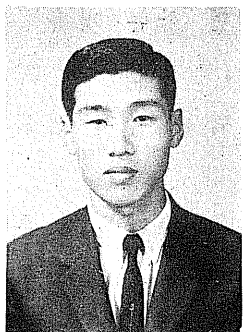
현대의 문화 소산인 우리들은 과학만능의 환경속에서 균형이 잡히지 못한채 자라왔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우리들은 제삼의 방법에 대해서 우둔할 뿐만 아니라 무식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세기 초반기의 물리학의 거성, 고 아인슈타인 박사의 위대한 업적의 하나는 그는 과학속에서 살면서도 이상의 제일제이, 제삼의 방법을 두려움없이 사용했으며 극감하게 만민에게 공포할 수 있는 용기를 갖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 7장 7-8절) 라고 말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어느 하나만의 방법만이 옳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가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심" 나사렛 지방의 목수였던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라는 하나의 진리도 오직 이상의 세가지 방법을 두려움없이 사용하며 겸손히 찾아갈 때에 우리의마음속에 밝혀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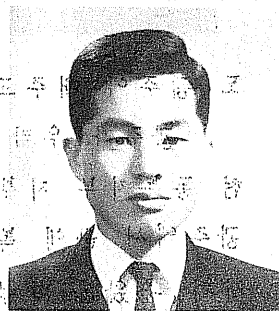
## 부름받은 宣教師



"사랑하는 주여 원하시는 곳 가오리다 대답하리" 정말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선교사로 부름받은 모든 형제님들인 것입니다. 수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협제 한국 선교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제 다시 청운지부의 서원형제와 서부지부의 황충열 형제가 한국 선교부의 부(서원장토)름을 받고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방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오랜동안 수고하셨던 서원장토는 그의 가족들을 보조해야 할 형편이지만 부름을 받고 그의 좋은 직장을 버리고 지난 8월 25일 부름을 받아 9월 첫주부터 발족한 광주지역 모임에 다른 세분의 선교사들과같이 호남지역에 있어서 물론 개척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부 지부장단 제1보좌로서 수고하셨던 황충열 형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업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일보다 먼저 그의 조국과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가르침대로 그의 사회적인 활동을 뒤로 미루고 지난 9월 부산지부에 속하여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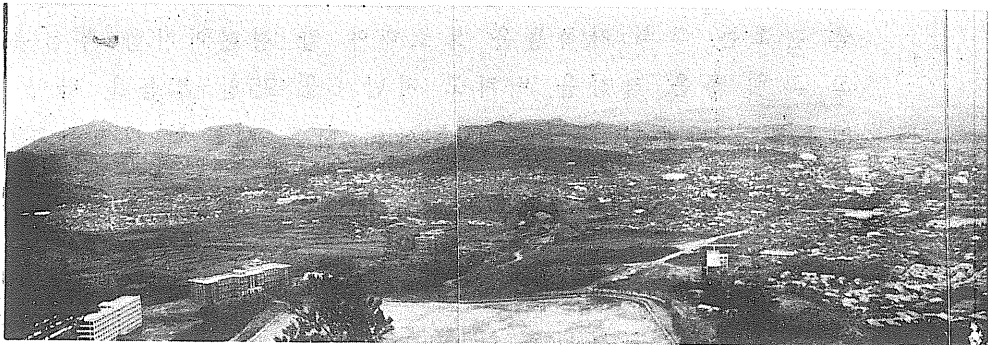
(황충열 장토)



## 光州地域開拓

한국의 각 중요도시에 지부를 세웠으면 하는 것은 교회 담국이나 모든 한국 성도들의 열망이었다. 지난 8월 20일, 힘들리 사도께서 광주지역을 개척하는 허락을 팔며 선교부장님께 전보로 알려 주셨다.

호남의 용도 광주는 교육문화도시로 그 주민들의 수준이 높아 종교면에서도 많은 교과에서 관심을 가져 장로교파에서는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곳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도하여 현재는 장로교파의 본산을 이루고 있는 형편이며 천주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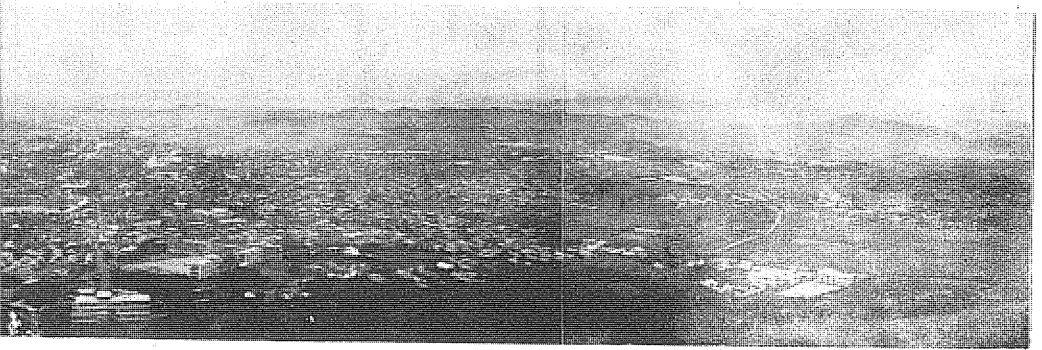


도 광주에 대주교구를 두고 교세 확장에 열중인 형편이다.

광주가 우리 돌몬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수년전일토서 현 동부지부 지부장단 제1보좌로 수고하시는 유청열 형제가 광주에서 군에 복무하고 계실 때 대학시절에 동부지부에 열심히 나왔던 박병규 형제가 구도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주일마다 모여서 집회를 가졌던 것이었으나 유청열 형제가 제대하여 상경하고 박병규 형제가 광주에서 너무 멀리 떨

어져 있어 자력으로서는 도저히 계속할 수 없어 중단하였던 것이다. 박병규 형제는 현재 약 200리가 되는 곳에서 집리의 복음가리틀 찾아 교회에 나와서 교사로서 수고하고 계신다. 박 형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고향에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그 기쁨을 감출길 없어 온 정력을 다하여 교회에 봉사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개척자로서의 선교사들은 벨슨 힐 장로를 책임자토하고 새토 부름받은 서웬장토, 사무엘 퓨장토 그리고 마트 피터슨장토등으로 9월의 첫모임을 그들이 유숙하였던 여관에서 회원 두사람과 선교사등 합해서 11명이 예배를 가졌



으며 다음주 부터는 양동에 있는 구도자 양 형제님의 집에서 예배를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4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보고 있다. 요즘 서웬 장토의 편지에 의하면 현재 모이는 회원이나 구도자들이 소개한 사람들과는 복음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쉽게 마련되는데 각호 방문으로서는 도저히 성과를 거두기 힘들드로 서울에 있는 회원들의 친지나 가족들을 소개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다.

# 光州에 단두사람의 敎人

## 敎 本 本 本

宗 敎

眞 色 地 帶

수한 권 교임을 심  
게 알 수가 있다.

교사와 韓國에서 徐  
源장로를 과견 시내  
시외동 梁모씨 집에서  
심어명이 모여 조초르  
한 예배를 보는 등도  
교에 힘쓰고 있다.  
이제 햇병아리처럼  
光州에 선보인 「물론  
교」 선교사들은 모두  
가 20대. 이들이 광  
주에 내려오게 된 것은  
첫째 조건으로 광주를  
선으로서 「물론교」의  
성령을 받고 열렬한 성  
도가 되리라 하니 불이 나  
있으므로 매도시를 중  
점적으로 포교하려는

獨創的 聖句 마저

光州 布 敎 家 制 日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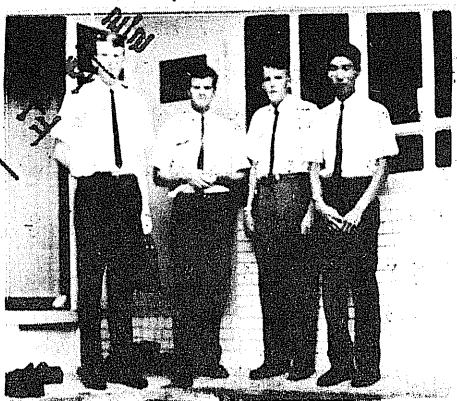
眞 敎 師 不 信 徒

우리나라에선 「木田  
聖徒 예수 그리스도 교  
회」라고 하면 잘못으  
로 「물론교」라고 불  
리야 어렵듯이 마거  
이성을 알아보기전에  
그 교회와 일부다처주  
의의 가족제도에 관  
심을 모으게 된다.  
그러나 이 「일부다  
처주의」는 「물론교」  
의 창시자였던 「조셉  
· 스노스」가 영접할  
받고 교회로 창립할  
당시 당시의 사회제도  
를 고려한 것이 불교  
였고 오늘날의 「물론  
교」가 이제 도를 깨지한

일찍 「물론교」가  
신이나 되지 않았고  
고 생 각 하 지 않았  
나 고 있는 「말일성  
도 예수 그리스도 교」  
이며 이들의 신앙개  
조 제 1조에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하  
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라고 명시해  
있어 비단 「크리스  
찬」이 아니다라고 한  
등 5명의 미국인선

「물론교」가  
신이나 되지 않았고  
고 생 각 하 지 않았  
나 고 있는 「말일성  
도 예수 그리스도 교」  
이며 이들의 신앙개  
조 제 1조에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하  
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라고 명시해  
있어 비단 「크리스  
찬」이 아니다라고 한  
등 5명의 미국인선  
쓰고 이들은 입을 모아  
「물론교」가  
신이나 되지 않았고  
고 생 각 하 지 않았  
나 고 있는 「말일성  
도 예수 그리스도 교」  
이며 이들의 신앙개  
조 제 1조에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하  
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라고 명시해  
있어 비단 「크리스  
찬」이 아니다라고 한  
등 5명의 미국인선

광주의 포교는 어느도  
에 비해 훨씬 더 고 말하  
고 시민들이 매우 호  
수적이기 때문이라 고는  
빛을 흐리기도 했다.  
이들의 경건으로는 「  
신·구약성서」의 「물  
론」을 부정한다. 말하



「물론교」의 창시자  
「조셉·스노스」가  
영원한 아버지 하  
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라고 명시해  
있어 비단 「크리스  
찬」이 아니다라고 한  
등 5명의 미국인선  
쓰고 이들은 입을 모아  
「물론교」가  
신이나 되지 않았고  
고 생 각 하 지 않았  
나 고 있는 「말일성  
도 예수 그리스도 교」  
이며 이들의 신앙개  
조 제 1조에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하  
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라고 명시해  
있어 비단 「크리스  
찬」이 아니다라고 한  
등 5명의 미국인선

# 非會員으로 부터의 激勵便紙

편집자 주: 크리스찬 그라프사 편집장 김응호 선생님께서  
부터 성도의 벗을 받고 지영달 형제에게 보내주신 격려의 편  
지를 여기에 전재합니다.

지 영 달 형제에게

성은증 지 선생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와 하시는 사업  
의 번영을 비나이다. 교제 우리주님의 은혜와 여러 형제 자  
매님들의 염려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 평안하옵니다. 폭염이  
가시지 않은 일기가 고르지 못한 기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  
을 즈음 형이 보내주신 "성도의 벗" 8월호를 받았습니다.

저 자신이 정기 간행물을 맡아 보고 있는 탓인지는 모르  
나 적은 것이나마 "성도의 벗"을 손에 들었을 때 처음 갖는 생  
각이 "큰 수고를 하셨군"하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의 원고  
를 수집하여 활자화 한다는데 따르는 고충과 어려움이란 사  
실 당해보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나는 어젯 밤  
"성도의 벗"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나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유인즉, 선교부장 배일문 박사가 취임하신지 불과 1년간의  
업적이었습니다. 지상에 나타난 업적만도 그러할진데 이 외  
의 성과도 그 이상의 것이 아닐런지요. 둘째는 서리에 취.  
팔머 자매님의 얘기였습니다. 선교부장님 못지않게 여러 방  
면에 활동하심을 볼 때 과업 내조의 힘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  
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셋째는 "스포츠"에 관한 소  
식이었습니다. 기성교회에서는 거이 찾아볼 수 없는 "스포

츠"잠려에 몰몬교가 표본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욕심 같아서는 "브리감 영"대학립을 한번쯤 초청해서 마치 "빅토리"농구팀과 같이 선교의 사절로 모셔왔으면 하는 욕심이 듭니다.

이영범 형제의 "애업자 조셉 스미스"의 기록은 나의 식견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채로운 내용과 아름다운표지가 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경영하는 "크리스찬 그라프"를 잘 소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히 앉아서 여러 형제들의 수고로워어진 "성도의 벗"을 받아볼 때 송구스런 맘 비할대 없나이다. 지선생님과 여러 수고하시는 형제들의 건승을 빌면서 또한 이 땅에도 많은 "몰몬"의 식구가 팽창하기를 아울러 기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영광 난필을 용서하소서

\* \* \* \*

태어난 곳은 어느 산골,  
작은 웅달샘 옆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고향은  
나의 사랑과 마음이 사는  
우리 임마  
가슴입니다.



## 李英範兄弟 結婚하다

지난 9월 10일 오후 2시 동부지부에서는 또 하나의 볼  
돋가정 탄생을 위한 성스러운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신람 이 영범 신부 조 현숙

백년해토할 것을 담부하는 주례앞에 신 한 쌍의 순암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형제 자매였다.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선교사를 역임한바 있는 충실한 성  
도인 신람 이 형제는 현재 나성지역 한국인 지방부장으로 지  
난 6월 27일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귀국하였던 것이다.

한편 신부 조자매는 9남매중 둘째 따님으로 현재 삼척지  
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박재암 형제의증  
매로서 신람 이 형제와 결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갑자기 결정된 이 결혼은 삼척지부 노총각들에  
게 상당히 큰(?)충격을 주기도 했다.

식은 예물교환 뒤 교회의회는 아니지만 한 인상 삼척지부  
장님의 신전결혼에 대한 말씀이 있는 다음 신람 신부는 각지  
부 회원을 비롯하여 친지 3백여명의 축복을 받으면서 웨딩 마  
취에 맞춰 퇴장하였다. 별실에서 지영달 형제님의 사회토열  
린 피토연에서 이호남 지방부장님은 예수님의 첫 이적이 결  
혼식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더라고 결혼은 크게 축복받은 의  
식이라면서 이 한 쌍의 앞날을 축복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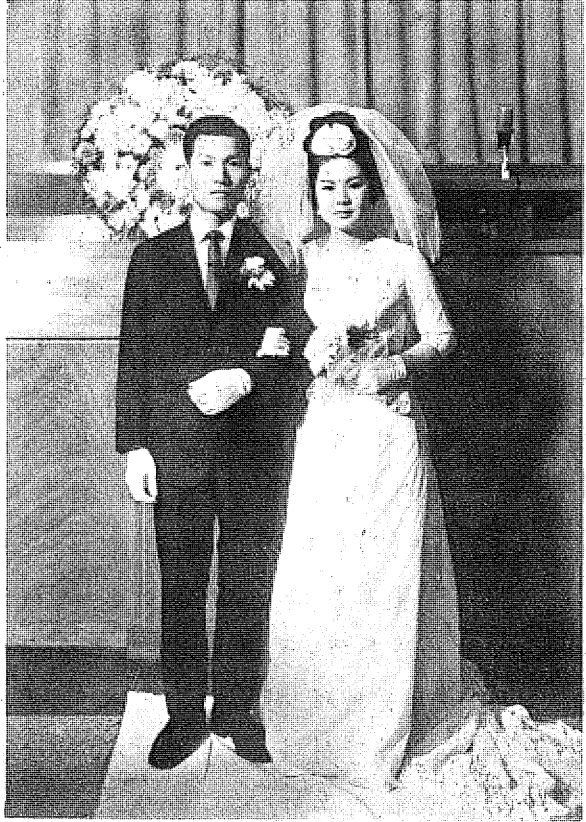
한 인상 형제의 의살쉬인 약력소개, 서부지부 유공선, 박  
정자, 김종혜, 오근희, 4자매의 "마벨라빔바", "즐거운나의집"

의 사중창, 삼청지부 임명재, 정단, 이규인 자매의 재미나는 가사의 노래 등으로 흥겨웁게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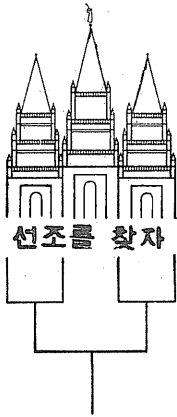
신랑의 "감사합니다." 인사, 신부의 "전세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다"는 답변은 너무나 또렷하여 찬탄을 샀으며 "완전한 일체인 동시에 완전한 개체를 이룩하라"는 박재암 형제님

완전한 개체를 이룩하라"는 박재암 형제님 등 여러 결혼 선배의 충고와 "형부가 밍다"는 임명재 자매의 말씀은 피토업의 피크를 장식하였다.

"나의집에 사람이 차고 넘치면"만 부트는 신랑신부의 답송으로서 막을내린 뒤 준비해둔 새나라차는 중남 유성으로 이 행복한 한쌍을 싣고떠났다.



(신랑 신부)



## 선교부 계보위원회 소식

지난호에서는 가족 기록서에 성명을 기입하는 요령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가족기록서에 여러 사람의 성명을 기입하는 난이 있었던 바 이번에는 지난 7월 23일자 "처치뉴스"에 소개된, 한국 선교부 계보 위원회에 관한 기사를 보기로 한다. 여기에는 몇년전에 제출된 청운지부 정인종 형제님의 가족기록서를 게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가족기록서를 통해서 더욱 명백히 성명기입 방법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모든 성명은 로마 문자, 한자, 그리고 한글의 세가지를 쓰고 있고 성씨를 로마문자로 쓸 때에는 모두 대문자로 쓰고, 이름과 구별하는 구두점을 찍고 있다.(다음페이지 사진참조) 이것은 영어로 된 가족기록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자나 주소를 영어로 썼으나 현재의 우리는 성명이외에는 영어를 쓰지 않고도 쉽게 기록할 수 있는, 우리말로 된 가족기록서를 사용하므로, 성명이외에는 모두 우리말로 쓸수 있다. 가족기록서 작성 요령을 계속하여 설명하기 전에 잠깐 "처치뉴스"에 소개된 기사내용을 보면, 한국은 계보 사업의 보배가 될 족보를 600년 내지 800년전부터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은 신전사업을 위한 훌륭한 자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Large Collections Of Records Found

# Korea Yields Genealogical Treasures

Priceless  
Data Kept  
Despite  
Turbulent  
History

By Douglas  
D. Palmer



Ray G. Cowley, left, and Young-Dahl Ji inspect 24 volumes of Lee family records.

The groundwork was laid centuries ago for genealogical work in Korea even though a concentrated program didn't begin in the country until last year.

Korea, "Land of the Morning Calm," is yielding veritable treasures of genealogical data. The Koreans have long carefully kept and preserved their records. Maintaining them has been a vital part of Korean culture for hundreds of years, and large collections of genealogical material are found throughout the land.

One may wonder why records have been preserved there. It is a country with a turbulent history of wars, revolutions, subjugations and a constant struggle for national survival, made necessary by the country's small size and vulnerable location.

But the Koreans have risen above many of their problems. Ray G. Cowley, chairman of the mission genealogical committee, says the genealogical program is now "permanently implanted" in the Church there. Mr. Cowley, a colonel in the U.S. Army in Korea, and Korean Mission Pres. Spencer J. Palmer are striving to make the program successful in the mission.

Members of the Korean Mission genealogical committee, appointed by Pres. Palmer, are Chairman Cowley; Kim Kicheun, first assistant; Young-Dahl Ji, second assistant; Maj. Walter Allen, servicemen's representative who is also servicemen's district president for Korea, and Elder Paul Johnson, missionary secretary.

A group of four persons at the Genealogical Society's Pacific Isles Processing Division also work on the Korean program. Edwin W. Jensen is in charge of the Oriental section of the division.

The mission has a genealogical library and reference file in the genealogy room on the mission home grounds in Seoul. Interest is mounting in the program throughout the mission, Mr. Cowley said.

Most of the complete family records in Korea date back 600 to 800 years, and some have been carefully kept since the meridian of time. They are not just royal family pedigrees, Mr. Cowley explained, but they encompass the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in all walks of life.

These collections of family data are in printed bound volumes and contain almost exactly the data needed for temple work. Records in America must be compiled, generally by years of research, but the Korean records have been kept as complete family group records. The responsibility for their upkeep has followed the patriarchal order with the oldest son of each family group being required to safeguard and update them usually at the original family domicile.

This responsibility is a sacred trust and continues as a basic factor in the Korean family culture. During the Korean War many of these records were preserved by hiding them in caves in the hills out of the

cities. Korean members of the Church are intrigued by pictures of the Granite Mountain Records Vault southeast of Salt Lake City.

The majority of the Korean members of the Church realize the importance of research and temple work but they have big hurdles to surmount. Consider these problems: All of the older family records are written in Chinese, some quite ancient.

"It is known that there are individuals in Korea conversant with this ancient language. It is hoped that members of the Church will learn what is necessary to decipher their old records from these individuals, Mr. Cowley said.

All names entered on the Korean version of the Church's family group sheet must be written in Chinese, Korean and in the English (Romanized) version.

Mr. Cowley also explained that the dating system utilized in all of these records is based on the lunar calendar system which is converted to the western calendar date by subtracting 2333 from the lunar date. All dates on the Korean family group record are in duplicate, one for each calendar system.

Strikingly similar to American family groups is the fact that each major family group in Korea has a genealogical organization with a central library where the family branches keep their data. There the collected information has been updated, frequently screened for accuracy and bound into volumes. The Koreans consider the assignment so important that one family is assigned a fulltime job at the center. An extensive amount of correspondence is carried on among the scattered family members and a type of pedigree referral service is sponsored by the family organization.

In late February of this year Mr. Cowley and two Korean missionaries were invited to see the records in the family library of one of the largest family groups in Korea.

"It was a rewarding experience to go step by step back through time with the elderly bewickered patriarch of the family who proudly explained the system used and volunteered information about some of his illustrious ancestors," Mr. Cowley said.

"In this humble family library were 47 bound volumes of family group records

dating back to 41 A.D. The Korean king at that time started what is now a vast and comprehensive genealogical record that includes most of his progeny, now numbering more than 7 million persons." This particular family, Kim, has 121 branches scattered throughout Korea. Each keeps records on their own branch.

During the Yi Dynasty from 1392 to 1910 A.D., families considered their records so valuable that they zealously guarded them by wearing them under clothing suspended from a string around their neck.

The volumes are printed on fine waxed rice paper. Until recent years, all entries were in the Chinese language in some families, Mr. Cowley said. Each page of the volumes lists a family group, father, mother and children with dates of birth, marriage, death and other important events. Also included is a brief summary of the father's accomplishments in a personal history. Through an indexing system, each son is listed with his wife and family. Such complete records, beautifully suited for genealogical work, have been and are kept by all literate people. The climate in Korea is more ideal for storing records since there is less humidity there than in Japan. Rice paper deteriorates more rapidly in high humidity.

The Koreans have followed the admonition of the Prophet Malachi to an amazing extent in their cultural practices. All Koreans, now and for centuries, have honored, loved and respected their ancestors. Several times a year they take time to demonstrate their feelings.

Each year on "Chusek" day the families trek to the burial sites of their ancestors and pay them ceremonial homage. On their lunar New Year's Day (January 23) they once again visit their ancestors' final resting place, and in addition they visit and pay respect to the oldest living members of their family.

The first Mormon missionaries arrived in Korea in 1863, and the Korean Mission was organized in 1862. The mission genealogical committee was appointed last year. After preliminary investigation, the committee pointed out the wide extent of available family records. Work was started to modify the regular Church-approved family group sheet for Korean use.

		CHINESE		KOREAN						
<b>HUSBAND</b>		CHUNG, In-jong	鄭仁鐘	符 仁 亨			<b>Husband</b>			
<b>Wife</b>		30 Apr 1909-L	馬	Ga-Whei Dong, Chong-No-Ku, Seoul, Korea			<b>Wife</b>			
<b>Ch.</b>										
<b>Marr.</b>		25 May 1938-L	馬	Chong-No-Ku, Seoul, Korea						
<b>Chid.</b>										
<b>Surv.</b>										
<b>WIFE</b>		CHUNG, Hei-wan	鄭喜寬	符 利 華	<b>HUSBAND</b>		HAN, Chung-hei 韓 昌 益 韓 昌 益			
<b>Chid.</b>										
<b>Surv.</b>										
<b>WIFE</b>		ROO, Sook-hwa	盧 淑 華	盧 舒 華						
<b>Ch.</b>		30 May 1919-L	馬	Whe Dong, Chong-No-Ku, Seoul, Korea						
<b>Marr.</b>										
<b>Chid.</b>										
<b>Surv.</b>										
<b>WIFE</b>		ROO, Soo-hyun	盧 秀 媛	盧 秀 媛	<b>HUSBAND</b>		PARK, Chung-sook 朴 貞 淑 朴 貞 淑			
<b>Chid.</b>										
<b>Surv.</b>										
No.	CHILDREN	WHEN BORN			WHERE BORN			DATE OF FIRST MARRIAGE TO THIS	WHEN DECEASED	YEAR
		DAY	MONTH	YEAR	TOWN	COUNTY	STATE OR PROVINCE			
1	CHUNG, Kwi-dong	26	June	1913-L	Ga-Whei Dong	Chong-No-Ku	Seoul	Korea		
2	鄭 吉 童 符 仁 亨									
3	CHUNG, Bok-dong	9	Apr	1944-L	"	"	"	"		
4	鄭 福 童 符 仁 亨								4 Sep 1958	BRADSHAW, James R.
5	CHUNG, Soo-dong	30	May	1940-L	"	"	"	"		
6	鄭 壽 童 符 仁 亨									
7	CHUNG, Chung-ja	7	May	1950-L	"	"	"	"		
8	鄭 貞 子 符 仁 亨									
9	CHUNG, Soon-ja	16	Nov	1953-L	Wonul Dong	Masan	Kyung-Nam-Do	"		
10	鄭 順 子 符 仁 亨									
11										

Names on Korean family group sheets must be recorded in Chinese, Korean and English (Romanized) letters.

## 몰몬少年團 組織

영국의 배이든 파울경이 청소년의 심신을 연마하기 위하여 창시된 소년단 활동은 오늘날 온세계 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함양에 이바지한 바 크다.

교회당국의 방침에 따라 1966-1967년 삼향회 회기에는 전위반과 기수반의 활동을 소년단 프로그램에 따라 활동하기로 되었다.

한국에 있어서의 몰몬 소년단의 발족은 전 선교부장보좌였던 카우리형제님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비롯된 것이다. 소년시절에 소년단에서 모범적인 단원으로 지내왔던 새드러 장모가 한국 선교부 고문으로 수고하기로 하고 동부지부가 대한 소년단 85대 독수리토 발족하여 손승주 형제가 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청운지부와 서부지부가 합하여 대한 소년단 제 86대 호랑이대로 발족하여 홍기송이 대장으로 임명되었다. 4월 10일 대한 소년단에 정식 가입신청을 내고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 몰몬 소년단은 카우리형제님이 주선해 주신 일체의 장비와 교통편의로 청평으로 캠핑을 갔다. 몰몬소년단 발대이후 처음 갖는 이 캠핑은 일기 관계로 처음 계획한바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처음 갖는 캠핑으로서는 만족할 정도였으며 대원 여러분들이 소년단원으로 느끼는 바 많았다고 한다.

카우리 형제님의 귀국으로 활동이 주춤하였던 소년단, 새로 한국 미군사고문단 작전참모로 부임한 새순형제님의 협조로 다시금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새순형제님의 주선으로 8월 26일 선교부 광장에서 대한 소년단 단복 착복식을 거행하

였다. 이 모임에서는 선교부장님의 축하 말씀과 새손형제의 특히 물든 소년단원의 금지를 갖고 어느대 보라도 훌륭한 소년단이 되라는 격려 말씀이 있었다.

이들이 수령받은 단복은 각자가 70시간의 노동을하면 무상으로 분배받게 되며 장비는 앞으로 계속 수령받을 수 있게 선교부에서 주신하리라 한다.

9월 17일 85대와 86대 합동 피크닉을 도봉산으로 가서 전원 두사히 돌아 왔다 한다. 이들 소년단은 여러가지 절차에 따라 대한 소년단의 승인을 받아 지난 10월 9일 오후 3시 서부지부에서 86대가 정식으로 발대식을 가졌다.



(단복을 수령 받고)

## 河根洙兄弟 夫婦來韓

6년전 한국에서 선교사업을 마치고 돌아왔던 레이 하킨스 형제는 오랜동안의 학구생활 끝에 미국무성 장학생으로 연세대학교에서 동양학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9월 2일 부인과 함께 한국에 도착하였다. 하킨스 형제는 선교사시절에 교회에 나왔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서 재회의기쁨을 나누었다. 그



는 도착소감으로 그가 알고 있는 비 활동 회원들을 한국에 머무는 동안 다시 활동적으로 만드는게 그의 숙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하킨스 형제는 청운지부, 삼청지부 성찬식에서 훌륭한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앞으로 한국 선교부 "데저렛 클럽"(한국물론 대학생회) 책임자로 대학생들의 클럽활동에 이바지하리라 한다.

## 버틀러兄弟 韓國에 留學오다

4년전 선교사업을 마치고 설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한국을 떠난 디이비드 씨. 버틀러 형제는 미국무성 장학생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내한하였다. 버틀러 형제는 앞으로 선교부 청소년 아톤신권 소유자 고문으로 교회일을 도우리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이들이 한국에 있는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성도들과 더불어 비는마음 간절하다.

# 宣敎部長任의 活動

물론 지도자들은 다방면에 있어서 능력의 소유자라야 하며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쌓은 지식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길잡이로서 손색이 없게끔 향상 시켜주는 것이다. 특히 한국 선교부의 스펜서 제이. 팔머 선교부장은 학계에 있어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한국에 선교부장으로 취임해 온지 1년여에 한국의 저명인사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보다도 팔머 박사를 더 잘 알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모임에 초대받아 고견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 그 일단으로서 지난 9월 1일자 중앙일보 4면에 게재된 재한 외국인에세이와 8월 16일자 동아일보 5면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를 여기에 전재한다.



▲「[중앙일보] 9월 1일자 제 4면」에 게재된 「외국인에세이」의 한 부분  
 ▲「[동아일보] 8월 16일자 제 5면」에 게재된 「인터뷰」의 한 부분

## 한국精神의 再發見

—「스펜서·J·팔머」博士—

「스펜서·J·팔머」는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로서, 한국에 온 지 1년여가 되어,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고 있다. 그는 한국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한국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의 연구와 실천은 한국 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스펜서·J·팔머」는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로서, 한국에 온 지 1년여가 되어,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고 있다. 그는 한국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한국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의 연구와 실천은 한국 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韓美外交史」는 1888년부터 1906년까지의 위시문(國務省), 駐韓美大使館사이의 교환된 外交文(미클로메티, 파우치)의 내용(마이크로메티, 로널드)을 1914년 8월 22일 支那의 對韓 外交文(主權未外交文)을 소재로 한 韓美 關係의 主眼點로 寫된 稿。

# 韓美外交史 10年研究

美 스펜서·파머博士

의 脫稿을 서두르고 있다. 「韓美外交史」는 1888년부터 1906년까지의 위시문(國務省), 駐韓美大使館사이의 교환된 外交文(미클로메티, 파우치)의 내용(마이크로메티, 로널드)을 1914년 8월 22일 支那의 對韓 外交文(主權未外交文)을 소재로 한 韓美 關係의 主眼點로 寫된 稿。



韓美外交史가 脫稿을 서두르고 있다. 「韓美外交史」는 1888년부터 1906년까지의 위시문(國務省), 駐韓美大使館사이의 교환된 外交文(미클로메티, 파우치)의 내용(마이크로메티, 로널드)을 1914년 8월 22일 支那의 對韓 外交文(主權未外交文)을 소재로 한 韓美 關係의 主眼點로 寫된 稿。

의 脫稿을 서두르고 있다. 「韓美外交史」는 1888년부터 1906년까지의 위시문(國務省), 駐韓美大使館사이의 교환된 外交文(미클로메티, 파우치)의 내용(마이크로메티, 로널드)을 1914년 8월 22일 支那의 對韓 外交文(主權未外交文)을 소재로 한 韓美 關係의 主眼點로 寫된 稿。

작고 전정과 追稿의 나라이지만 알려져 있던 「로리아」가 저자들의 5년간 辛苦의 결과로 미끄러져 나왔고, 미국의 對韓 關係의 門戶開放史에 손을 댈었지만 「그리나아」와 「안남하서」가 아니라 「韓國人」을 主眼點로 寫한 韓美通商은 가지 않는 「似而非」이다.

三國時代에 對中國, 蒙古, 日本을 對의 對韓 關係를 맺어왔다. 近代에 對시 日韓 關係를 맺어왔다. 對韓 關係의 門戶開放史에 손을 댈었지만 「그리나아」와 「안남하서」가 아니라 「韓國人」을 主眼點로 寫한 韓美通商은 가지 않는 「似而非」이다.

## 3卷 脫稿서둘러

### 韓國文化의 支柱

# 精神的 支柱

韓國文化의 支柱. 「韓美外交史」는 1888년부터 1906년까지의 위시문(國務省), 駐韓美大使館사이의 교환된 外交文(미클로메티, 파우치)의 내용(마이크로메티, 로널드)을 1914년 8월 22일 支那의 對韓 外交文(主權未外交文)을 소재로 한 韓美 關係의 主眼點로 寫된 稿。

韓美通商은 가지 않는 「似而非」이다. 韓美通商은 가지 않는 「似而非」이다. 韓美通商은 가지 않는 「似而非」이다. 韓美通商은 가지 않는 「似而非」이다. 韓美通商은 가지 않는 「似而非」이다.

韓美通商은 가지 않는 「似而非」이다. 韓美通商은 가지 않는 「似而非」이다. 韓美通商은 가지 않는 「似而非」이다. 韓美通商은 가지 않는 「似而非」이다. 韓美通商은 가지 않는 「似而非」이다.

韓美通商은 가지 않는 「似而非」이다. 韓美通商은 가지 않는 「似而非」이다. 韓美通商은 가지 않는 「似而非」이다. 韓美通商은 가지 않는 「似而非」이다. 韓美通商은 가지 않는 「似而非」이다.

〈總發行者〉

## 쏘프트 볼 게임 中繼

1966년도 한국 지방부 각종 스포츠 경기 가운데 마지막 경기종독 쏘프트볼 게임은 각 지부에서 준비한 응원단의 화려함과 각 지부 선수들의 오랜동안의 훈련후이니 만큼 기대가 자못 컸다. 지난 8월 27일 동대문 상고에서 열린 경기는 첫 게임으로 삼척지부대 서부지부였는데 지부장님의 직접 인솔아래 맹렬한 선수 훈련에 결들어 질서정연한 응원단의 활동에 힘입어 삼척지부팀은 서부지부팀을 가볍게 눌러 결승에 진출할 자격을 가졌다. 두번째로 작년 우승팀이었던 청운지부와 왕년의 관록을 자랑하는 동부지부와의 대전이었다. 마지막 회인 7회초가 지날 때까지 동점이여서 연장전을 불면할 형편이었으나 7회말 공격인 청운지부가 연속 2점을 득점하여 청운지부팀이 결승전에 진출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날 각 지부에서 준비한 응원단은 각 지부에 선의의 경쟁의식을 돋구어 주었으며 특히 삼척지부는 박중식 형제의 첩저한 인솔아래 질서정연한 응원을 하여 이날 응원심사위원들인 각 지부장님들의 만장일치로 응원상을 획득하였다. 결승전은 9월 3일 경기고등학교 교정에서 삼척지부와 청운지부가 대결했는데 막삼막하의 실력자들의 대항인지라 시종 시소게임을 벌리다가 3대2라는 아슬아슬한 스코어로 작년 우승팀인 청운지부가 영예의 우승을 차지하였다. 기자가 여기에서 느낀 것은 준결승전은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응원하였으나 정말 결승전에 있어서는 출전지부에서의 응원단이 없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했다.

## 해 외 소 식

한국의 형제 자매님들 앞에

저와 조 자매님의 결혼을 축복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소를 허용하여 주신 동부지부 황 지부장님과 여러모로 후원해 주신 삼척, 서대문, 청운 지부 각 지부장님들께 또 지방부의 박재암 형제, 이호남, 차종환 형제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젯트기식으로 결혼을 해버리고 젯트기식으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젯트기식으로 떠난지라 별로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떠나온 것을 멀리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초스러운 저를 따뜻이 맞아주신 대구지부, 부산동구, 부산지부의 성도들과 지부장님들에게 또한 저의 감사와 안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뵙을 것을 기약하면서 저의 인사의 말씀을 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1966. 9. 17.

이 영 범 올림

## 大邱支部 자랑

기자는 무더운 8월 어느날 교회에서 구도자와 공부를 마치고 땀에 흠뻑 젖어 나오는 박동자 자매님을 만나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매님, 수고하십니다." 하자 "무얼, 전부가 선교사 아닙니까" 당연하다는 것 같이 웃어 넘긴다. 약 2년전에 아카나 잠토와 슈미트 잠토에게서 침례를 받은 후 줄곧 김미람자매와 동반자가 되어 시간선교사로서 지금까지 10여명의 구도자를 회원으로 만들었다. 그때부터 복음선교사로서 내 자신보다도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갔으며 심지어는 금식기도도 해야만 하였다 한다. 또 날마다 교리를 공부하다보니 이젠 상당한 실력파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감정이 없었던건 아니지만 공부를 끝낸 구도자가 침례를 받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과 충만한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으며 반면에 공부를 하다가도 참된 회복의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에는 서글픔까지도 불러 일으켰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에 의지하고 야곱서 1장 5절을 되새기고는 다시 용기를 얻었으며 아직 시간 약속 한번 어겨본적이 없다는 성실한 말일성도의 자매이기도 하다. 자기가 시간 선교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말일성도는 다른 사람의 도범이 되는 행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는 자매는 자기도 화가 나도 여러번 참아버려야만 했기 때문에 이젠 아주 성을 더디내는 축에 속할거라고 웃으며 은근히 자랑한다.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라도"하고 묻자 "우리가 아직 처녀들이라서  
그런지 나이가 든 구도자가 있어도 어색하여 피하는 적이 많  
았을것 같아요"하며 말끝을 흐린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 놓  
고 시간약속을 하겠다는 눈치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특히 생명의 복음을 가르친다는 사실은 나 자신뿐 아니라 모  
든 사람에게 아주 큰 관심거리일 것이며 말일성도의 교리를  
가르치는 한 성도로서의 기쁨은 사도행전의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거룩하다"는 말을 다시 체험하는 것 같다고 전한다.  
끝으로 자매의 희망은 더 많은 구도자와 더 많은 공부를하는  
것이며 교회안에서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소원이  
라 한다. 기자는 자매가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또  
앞으로도 계속 교회일에 충실하고 충성된 자매가 되기를 빌  
며 선교사들의 찬송소리를 뒤로하며 자리를 떠났다.

1966. 8.

대구지부 정길

\* \* \* \*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몸에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슬  
려도 입신에 이롭다고 했는데 끝내 알쏭 달쏭한 것은 언과  
행의 거리였다. 물론이슴이 회복된 참된 것인 줄을 아는것  
은 그것이 바토 행을 추구하고 생활에 묻힌 생활의 본질을 가  
르치기 때문인 것이다.

- 편집실 -

1966년 8월 한국지방부 칠폐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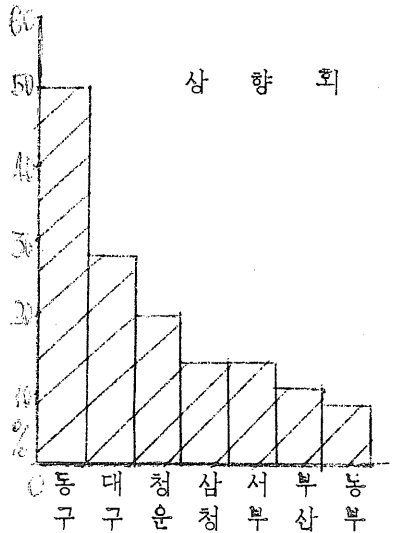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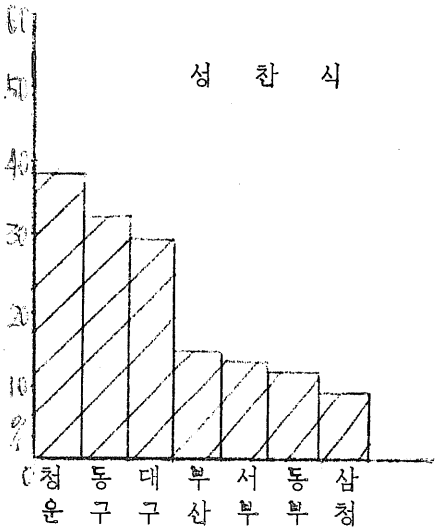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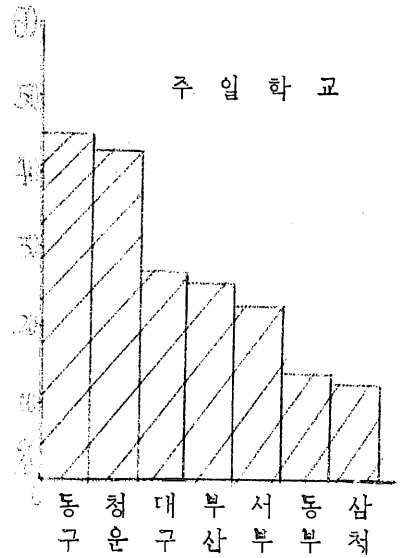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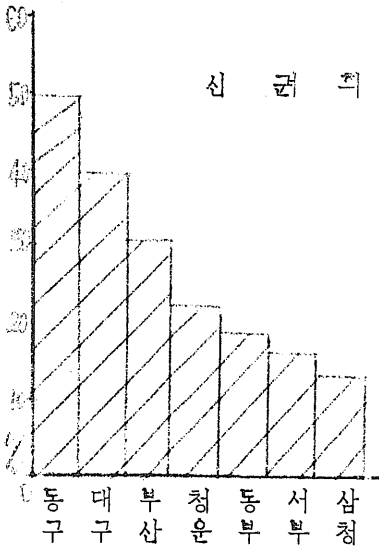
- 대구지부 — 서영옥, 박용자, 배해경, 배동렬, 이상록, 허정엽  
이상국, 박용, 성순경, 안재호, 유활환, 박화봉  
이선태, 곽연조, 손정옥, 이길섭.
- 부산지부 — 강옥주, 곽건연.
- 부산동구 — 차영익, 차혜숙, 김태수, 김추, 김추엽, 방춘성  
홍종숙.
- 청운지부 — 강영순, 선혜영, 신경희, 정현길, 김우호, 윤순철  
최돈근.
- 삼척지부 — 김태석, 전영재.
- 신촌지역 — 김영태, 김영소, 림영조, 마경숙, 김복순.
- 성북지역 — 임성자, 최재경,
- 서부지부 — 최혜정, 정은자, 김병남, 이순옥, 최명화, 최명자  
이양길, 신현철, 황재희, 장삼남, 장명자, 김명숙  
김정숙, 서용연.

\* \* \* \*

편집 후기

제법 좁다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일년을 서서히 반성하는 계절이기도 하구요 ... 9월호가 또 늦어 버렸습니다. 모두가 너무 바빠서 그렇군요. 다음호는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세요. 많은 원고를 보내주신 대구지부 정정길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식)

# 七月 各支部 發展相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部

(住所錄)

宣教本部	} 서울特別市 鍾路區 清雲洞 7番地 ⑦③ 3995
清雲支部	
三清支部	서울特別市 鍾路區 三清洞 5番地 ⑦② 3596
東部支部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龍頭洞134의19 ⑨② 1005
西部支部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忠正路2街58의1 ⑦③ 1208
大邱中央支部	大邱市 三德洞 2街 24番地 ② 6659
釜山支部	釜山市 東大新洞 3街 95番地 ② 1371
東區支部	釜山市 東區 水晶洞 658의 10



66

성도의 벗

發行人	스펜서 제이·팔마
發行人補	韓 仁 相
編輯人	具 重 植
發行所	서울特別市 鍾路區 清雲洞 7
印刷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本部